

Robert André Jouanny

프랑스 파리-소르본느 대학 교수
불어권연구국제위원회 유럽소장

불어문화권(Francophonie)과 통합유럽

로베르 주아니

본 발표의 목적은,

- 불어와 불어로 표현된 문학에 중요한 위치를 부여해온 수 세기에 걸친 유럽 전통의 현 위상을 확인하고;
- 정치·문화적 상황에 비추어본 불어문화권의 유럽에서의 미래 전망을 검토 하는 것이다.

여러 세기 동안 불어는 유럽에서의 문화적 통일성의 한 요소였다. 그러나 'Rivarol' 처럼 불어의 보편성에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던 시대, 실제 생활에서 유일한 패스포트를인 양 불어만 가지고도 유럽을 가로지를 수 있었던(하지만 어떤 유럽인가?) 시대는 이제 지나가버렸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불어와 그 문화에 대해 부당한 특권적 지위를 주장하기 보다는 사태를 명확히 인식하는 일이다.

유럽의 불어 사용 공간

약 7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유럽에서 불어 사용 공간의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약 6천 5백만, 즉 전체 인구의 10%이다. 통계 수치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은 거기에서 출발하여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및 군소 국가들과 몇몇 특수한 예들이 포함되는 지리적인 불어권을 특징지워야 한다. 또한 그들 중의 어느 나라도, 심지어 프랑스 조차도, 두 개 혹은 다수언어 병용의 문제를 회피할 수 없다는 사실, 그 문제와 관련한 각국의 상황을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언어는 단순한 하나의 도구 이상의 것이다. 예컨대, 동일한 불어가, 벨기에에서는 위협받는 아이덴티티의 확인 수단이고, 4개의 공용어를 지닌 스위스에서는 다양성의 보존 수단이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훌륭한 불어'라는 신화와 제국에서 식민 제국으로 이어지는 그 사

회 역사적인 토대, 교사들의 '식민화', 문화적인 '동화' 정책 등등의 언어적 (그리고 정치적?) 패권에의 우울한 추억을 배경으로 지나는 매우 단일한 의사소통 수단인 것이다.

그런 복합적인 상황으로부터, 불어권에 있어서의 최소한 3가지 상이한 행동심리가 생겨난다. 생존을 위해 불어를 말하는 것, 자신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불어를 말하는 것, 국제적인 역할을 행사하기 위해 불어를 말하는 것이 그 3가지이다. 불어권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하기가 어려운 이유, 인문 지리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려 할 때 접근방식의 거의 극복할 수 없는 상이함이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유럽 불어권의 이산(離散, diaspora)

지리적인 공간 이외에, 비불어권 나라의 불어 사용 작가라든가 불어권 밖에서의 불어 사용(혹은 취향) 등으로 나타나는 관념적 불어 사용 공간이 존재한다.

- 과거, 현재의 역사적 사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이산 현상은 검토의 가치가 있다. 주변적인 것으로, 이 현상은 국가간의 균열, 차이, 경쟁을 초월한다. 선택적인 것으로, 전통 혹은 역사적인 필연성의 구속을 벗어난다. 개별적인 것으로, 사회 경제적 현상이 아닌 문화적 현상으로 간주되기에 충분하다.

역설적으로, 이 현상은 역사의 부침을 알지 못하며, 문화 외적인 변수들로부터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현상은 정신(그리고 어쩌면 모랄) 영역에서의 불어권의 중요성을 증언하고 있다.

몇몇 예에 비추어보면, 그릇된 '파리 환상(mirage de Paris)'이라는 말로서는 왜 이 현상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지가 드러난다. 작가가 글을 쓰는 것은 그 자신을 위해서이다. 한 작가가 자신의 모국어로 글을 쓰기보다 불어로 글을 쓴다면, 특히 그것이 유럽인이란면, 이는 불어가 진정한 의미의 자기 자신(어쩌면 적나라한 자기 자신)을 표현해 주기 때문이다.

- 의미있는 연속성:

‘프랑글레’와 ‘아메리칸 생활 방식’에 위협받는 불어와 프랑스 문화의 쇠퇴에 대해 사람들이 염려하던 바로 그 순간에, 새로운 사실 하나가 문제를 재고하게끔 만들었다. 유럽 동서간 장벽의 와해는 잊혀져왔던 한 불어권의 영속을 드러내주었고,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등의 예는 이산(diaspora) 불어권 작품들 전체를 새로운 시각으로, 즉 모방에 따른 자기소외의 불어 사용이 아니라 ‘또다른’ 자기확인 수단으로서의 불어 사용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다 (이스라엘이나 그밖의 나라들은 차치하고라도, 스페인, 그리스 등이 그렇다). 그러한 맥락에서, 불어권의 운명은 통계나 정치학의 대상이 아니라는 느낌, 기대의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느낌이 생겨난다. 무엇에 대한 기대인가? 시간의 흐름이 말해줄 것이다. 기껏해야 우리는 가정을 세워볼 수 있을 뿐이다.

유럽의 기대

불어의 사용은 장차 유럽의 문화생활에 여러 가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국제적인 의사소통의 언어 (그 약점들 자체가 장점이 되는).

엘리트주의에 빠지지 않을 만큼 충분히 분포되어 있는 동시에 일관적이고; 지나친 야심을 의심받지 않을 만큼 충분히 한정(2억?)되어 있고; 단순한 기능적 역할에 빠지지 않을 만큼 지적인 관련이 풍부하고; 이념적인 맥락과 무관하게 사용될 수 있을 만큼 ‘중립적’이고; 숭한 기대에 부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휴머니즘의 탄생에 일정한 기대를 하기에 충분한 문화적 유산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

- 자기확인의 질문과 문화적인 질문들을 통한 새로운 세계 (다가올 세기의 전 지구적인 세계로의 복합적인 창구).

유럽 전역에 걸친 대학에서의 불어권 교육 확산 현상: 그 표명하는 바와 의미.

보편 문명어로의 편입. ‘불어권’ 자체 내에서도 이제 프랑스는 예전처럼 자기확인의 거의 절대적인 참조체가 아니라 단순한 하나의 구성원, 기껏해야 중개자에 불과하다(반대로, 독일 재통일을 눈 앞에 둔 유럽의

반응을 보라). 불어권의 비중은 유럽의 불어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그리고 특히?) 아프리카, 퀘벡, 서인도 제도 등에 있기도 하다.

- 이타성의 풍요로움에 대한 비소외적 인식.

요컨대, 문화의 진전은 언어에 대한 인간의 관계에 의해 예시된다. 무엇보다도 하나의 이념(idée)인 한에 있어서, 통일 유럽은 단일 체제일 수도 없고 단일 체제이어서도 안된다. 불어와 같은 언어는 그 역사적(식민지 상태 해소, 1789), 이데올로기적(휴머니즘 전통), 사회문화적(외향성, 개방성) 내포에 의해, 진행중인 통합 속에서의 유럽 제국가가 각각의 차이를 보존하도록 돕는 장치로서 고려될 수 있다. 불어가 초석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경제나 정치역학의 차원 이상으로, 그러한 차원에서이다.